더큰경남,더큰미래

발간번호
GYSA-21-020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포럼

일시 | 2021. 12. 7 (화) 14:00~16:00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YouTube 채널 검색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쌩깐다

주최·주관 | 경상남도 GYEONGNAM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Gyeongsangnamdo Youth Counseling&welfare center

공동수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14:00~16:00

방송 |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YouTube 채널 검색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쌩깐다

주최·주관 | 경상남도,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수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사회 : 이광재 상담원(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	진행	내용
14:00~14:05	개회식	[인사말] · **차윤재 원 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이상훈 국 장**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 · **김하용 의 장** (경상남도의회) · **양미진 본부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05~14:35	주제발표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 · **이은석 교수** (경남도립거창대학)
14:35~14:40		장내정리
14:40~15:40	토론	전문가 의견 교류 · **신상훈 의 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김상문 장학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신영재 센터장**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지혜 교 수**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5:40~15:50		종합토론
15:50~16:00	폐회식	마무리

목차

발표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결과보고

이은석 교수 (경남도립거창대학)

토론

신상훈 의　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상문 장학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영재 센터장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지혜 교　수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발표
—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결과보고

이은석 교수
(경남도립거창대학)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기초보고서

이은석(경남도립거창대학)

실태조사 개요

- **목적 :** 경상남도 내 청소년의 일상 및 위기 수준 파악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보호복지 정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조사대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3~18세 청소년 5,367명
- 조사방법 : 선정된 학교로 우편 혹은 차량으로 배송하였으며, 학교별 담당교사를 통해 학급단위로 자체 실시
- 조사기간 : 2021. 6.21. ~ 2021. 9. 1.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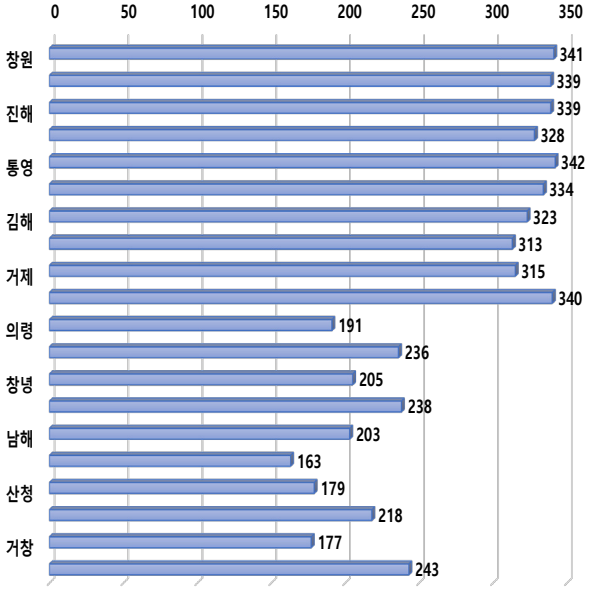
대영역	세부주제	문항 수
1. 최근 기분이나 생각(심리적 특성 등)		28
2.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2-1. 가정 내 경험	16
	2-2. 가정 밖(가출) 경험	15
3. 인터넷 이용 경험	3-1. 스마트폰 이용 경험	15
	3-2.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	12
4. 일상생활 경험	4-1. 아르바이트/근로경험	3
	4-2. 술/담배/약물 이용경험	15
	4-3. 돈내기 게임 경험	4
5. 주변 생활안전	5-1. 폭력 피해 경험	13
	5-2. 성폭력 피해 경험	10
	5-3. 성경험	11
	5-4. 자해(자살)경험	16
6. 희망 지원방안		37
7. 학교 밖 청소년		10
8. 일반적 특성		1
총계		206문항

실태조사 개요

응답자 구성 현황

학력	응답자 수	응답 비율
중학생	2,709	50.3
고등학생	2,658	49.7
남	2,684	49.7
여	2,683	50.3
합계	5,367	100.0

지역별 응답자 수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개인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문항
자존감	1.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통제력	13. 무슨 일이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
	2.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14.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3.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5.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4.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16.쉽게 화를 낸다.
타인에 대한 이해	5.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17.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6.다른 사람의 응답을 귀 기울여 듣는다.	갈등해결 역량	18.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7.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19.내가 속한 집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사회적 철회 (위축)	8.다른 사람의 응답을 귀 기울여 듣는다.		20.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9.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는 편이다.	삶에 대한 인식	21.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10.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22.내 삶에 만족한다.
	11.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다.	건강상태	23.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12.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24.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개인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

가. 전체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심리적 특성의 7개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특성으로 응답한 비율)

* 부정문항(역채점 문항)

자존감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철회(위축)*				
1	2	3	4	비율평균	5	6	7	8	비율평균	9	10	11	12	비율평균
15.7	5.7	28.4	27.6	19.4	5.3	3.7	10.4	10.7	7.5	22.4	11.2	9.8	28.8	18.1

자기통제력*						갈등해결역량				삶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		
13	14	15	16	17	비율평균	18	19	20	비율평균	21	22	비율평균	23	24	비율균
57.2	38.4	19.1	23.8	18.2	31.3	26.6	16.4	17.3	20.1	16.1	22.3	19.2	19.2	16.3	17.8

13. 무슨 일이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 / 14.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개인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

나. 학력별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심리적 특성의 7개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특성으로 응답한 비율)

* 부정문항(역채점 문항)

구분	자존감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철회(위축)*				
	1	2	3	4	비율평균	5	6	7	8	비율평균	9	10	11	12	비율평균
중	17.5	6.3	28.1	27.0	**19.7**	6.7	4.4	10.9	12.1	**8.5**	21.1	9.6	10.4	28.0	**17.3**
고	13.8	5.0	28.7	28.2	**18.9**	6.5	3.0	9.7	9.2	**7.1**	23.7	12.6	9.4	29.7	**18.9**

구분	자기통제력*						갈등해결역량				삶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		
	13	14	15	16	17	비율평균	18	19	20	비율평균	21	22	비율평균	23	24	비율평균
중	54.0	37.5	19.0	26.8	18.1	**31.1**	30.3	19.2	19.6	**23.0**	16.8	21.8	**19.3**	19.5	16.1	**17.8**
고	60.4	39.3	19.2	20.8	18.3	**31.6**	22.9	13.6	15.1	**17.2**	15.5	22.8	**19.2**	19.0	16.6	**17.8**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개인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

다. 성별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심리적 특성의 7개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특성으로 응답한 비율)

* 부정문항(역채점 문항)

구분	자존감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철회(위축)*				
	1	2	3	4	비율평균	5	6	7	8	비율평균	9	10	11	12	비율평균
남	12.5	4.4	21.2	20.9	14.8	5.5	4.6	10.5	11.5	8.0	22.6	10.9	10.9	26.9	17.8
여	18.7	6.9	35.6	34.2	23.9	5.2	2.9	10.2	9.8	7.0	22.2	11.3	8.9	30.7	18.3

구분	자기통제력*						갈등해결역량				삶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		
	13	14	15	16	17	비율평균	18	19	20	비율평균	21	22	비율평균	23	24	비율평균
남	54.7	38.2	20.2	22.3	21.1	**31.3**	28.2	18.6	19.0	**21.9**	15.1	17.5	**16.3**	19.9	14.0	**17.0**
여	59.7	38.6	18.0	25.3	15.4	**31.4**	25.1	14.2	15.7	**18.3**	17.1	27.1	**22.1**	18.6	18.6	**18.6**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존감과 삶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개인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

라. 지역별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심리적 특성의 7개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특성으로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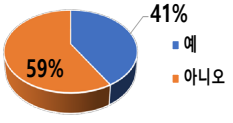
* 부정문항(역채점 문항)

구분	응답 비율 평균 3순위						
	자존감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철회(위축)*	자기통제력*	갈등해결역량	삶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
진해			20.1		22.9	22.5	
통영	21.9	9.1		34.8		22.1	22.3
사천			20.7				
거제	23.3						23.4
의령							23.1
고성				34.1			
남해		10.2	21.7	36.4			
하동						22.4	
함양		10.2			24.0		
거창	21.5						
합천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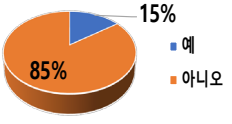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2. 은둔형 외톨이 성향 또는 우울 관련 경험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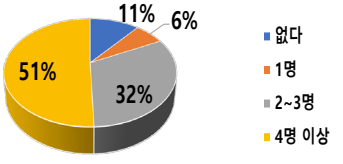
은둔형 외톨이 성향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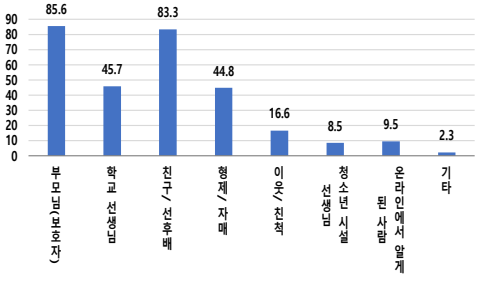
우울 관련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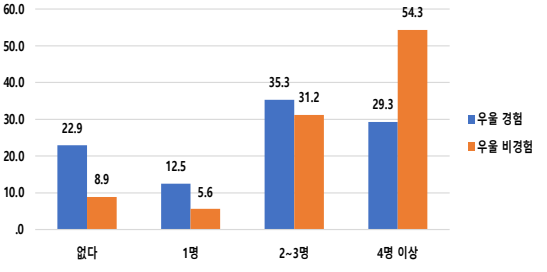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체계 인원에 대한 응답 결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성 유형



우울 경험에 따른 사회적 지지체계 구성인원(다중응답)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3. 가정 안팎 생활경험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가. 전체 응답자의 부모-자녀 관계 종합 분석 결과(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로 응답한 비율)

부모-자녀 관계						
1	2	3	4	5	6	비율평균
4.2	6.6	13.1	8.7	2.2	2.3	6.2

1.우리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3.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4.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5.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6.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3. 가정 안팎 생활경험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나. 학력별 부모-자녀 관계 종합 분석 결과(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로 응답한 비율)

구분	부모-자녀 관계						
	1	2	3	4	5	6	비율평균
중	4.6	8.0	14.1	7.7	2.2	2.5	6.5
고	3.8	5.2	12.1	9.6	2.2	2.2	5.9

1.우리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3.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4.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5.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6.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관심과 의사결정을 위한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함)

중학생 자녀의 부모교육 시 고등학생에 비해 관심과 의사결정을 위한 격려와 관련된 부모교육의 고려 필요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3. 가정 안팎 생활경험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다. 성별 부모-자녀 관계 종합 분석 결과(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로 응답한 비율)

구분	부모-자녀 관계						
	1	2	3	4	5	6	비율평균
남	3.7	5.8	11.7	8.5	3.2	2.9	6.0
여	4.7	7.4	14.5	8.8	1.2	1.8	6.4

1.우리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3.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4.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5.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6.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적인 보살핌을 더 받는다고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함)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박이나 가출에 대해서 관심을 받는다고 인식(통계적으로 유의함)
여학생은 정서적인 지원과 관련된, 남학생은 외박이나 가출 등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모교육을 고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3. 가정 안팎 생활경험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라. 지역별 부모-자녀 관계 종합 분석 결과(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로 응답한 비율)

구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결정지지	15.0	8.0	13.0	9.8	16.1	14.1	11.1	17.3	14.6	
출석관리										12.4

구분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결정지지	9.9	11.3	12.7	11.8		17.5	13.4	14.2	8.5	16.5
출석관리					15.8					

-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평균평점(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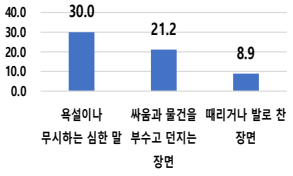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3.53	3.58	3.50	3.50	3.47	3.50	3.55	3.46	3.49	3.47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3.52	3.53	3.54	3.51	3.46	3.35	3.50	3.48	3.63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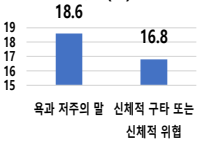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4. 가정불화와 가정폭력·학대 경험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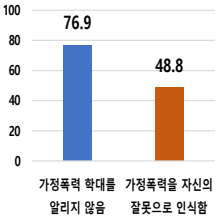
가정 내에서 가정불화 장면을 목격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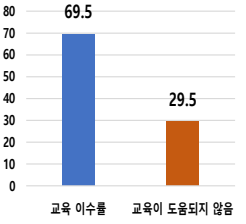
평생 1회 이상 가정폭력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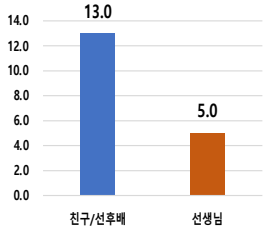
가정폭력 및 학대 인식 관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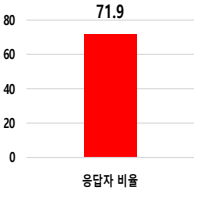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교육 관련 응답 비율(%)



가정폭력 및 학대를 알린 주요 대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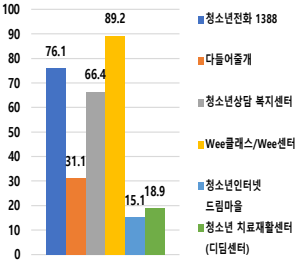


대응 결과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 본 비율(%)



지원기관(1388) 등 지원기관에 알린 적이 없는 지역(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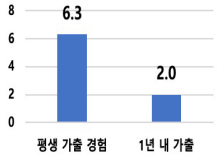
청소년지원기관 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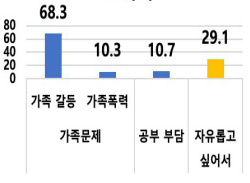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5. 가정 밖에서 지낸 경험(가출 경험)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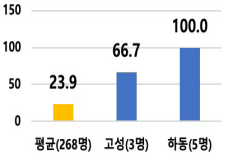
가출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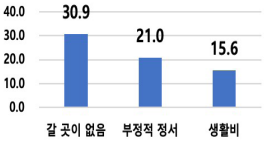
가출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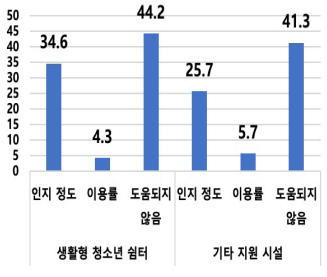
가출에 대해 도움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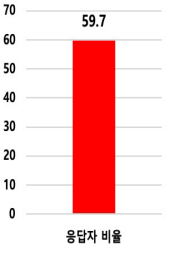
가출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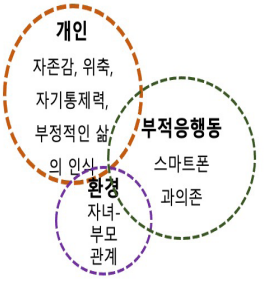
가출 지원기관 관련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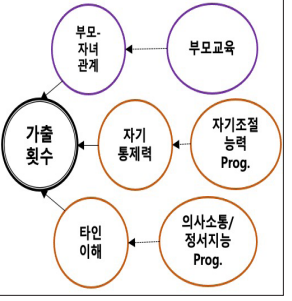
가출 지원기관 정보가 없어 활용 못한다는 응답 비율(%)



가출 경험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회귀 변인 필요 교육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6.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종합 분석 결과

가. 전체 응답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종합 분석 결과(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고 응답한 비율)

스마트폰 이용								
1	2	3	4	5	6	7	8	비율평균
45.2	43.4	13.2	22.5	38.2	23.6	4.1	14.8	25.6

1.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2.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3.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4.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5.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6.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7.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8.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혹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1번 문항인 시간관리 문제 / 2번 문항인 집중 문제 / 5번 문항인 건강 문제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6.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종합 분석 결과

나. 학력별 스마트폰 과의존 종합 분석 결과(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스마트폰 이용								
	1	2	3	4	5	6	7	8	비율평균
중	39.8	35.7	10.7	16.7	38.8	25.7	4.7	10.1	22.8
고	50.7	51.1	15.7	28.2	37.5	21.5	3.5	19.5	28.5

1.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2.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3.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4.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5.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6.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7.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8.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혹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1~4번 문항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6번 문항인 가족과의 갈등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6.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종합 분석 결과

다.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종합 분석 결과(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스마트폰 이용								
	1	2	3	4	5	6	7	8	비율평균
남	40.0	40.8	11.7	18.3	33.7	23.6	4.1	13.3	23.2
여	50.4	45.9	14.7	26.5	42.6	23.5	4.1	16.3	28.0

1.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2.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3.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4.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5.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6.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7.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8.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혹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1~5, 8번 문항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큰 것으로 나타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6.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종합 분석 결과

라. 지역별 스마트폰 과의존 종합 분석 결과(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스마트폰 이용								
	1	2	3	4	5	6	7	8	비율평균
창원								17.3	
진해		51.7							
통영	49.1								27.7
밀양			16.9		41.6	26.9			
양산		49.2	21.8	26.3		27.8			28.8
의령	50.5			26.9	42.3				
창녕							7.6		
남해							6.5		
하동	59.7	58.6	23.8	38.7			8.8	26.0	34.1
산청					41.6				
거창						26.7		17.0	

1.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2.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3.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4.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5.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6.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7.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8.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혹은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7. 게임 과몰입 경험 종합 분석 결과

가. 전체 응답자의 게임 과몰입 종합 분석 결과(게임 과몰입이라고 응답한 비율)

게임 과몰입						
1	2	3	4	5	6	비율평균
27.8	14.1	29.2	4.1	2.0	14.0	15.2

1.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꾸 게임이 생각이 난다. 2.게임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게임은 중요하다. 3.불쾌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4.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에 빠지거나 가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5.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6.게임을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3번 문항인 불쾌한 감정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 1번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꾸 게임이 생각 난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7. 게임 과몰입 경험 종합 분석 결과

나. 학력별 게임 과몰입 종합 분석 결과(게임 과몰입이라고 응답한 비율)

구분	게임 과몰입						
	1	2	3	4	5	6	비율평균
중	24.7	14.0	30.5	4.5	2.3	17.4	15.6
고	32.4	14.3	27.6	3.7	1.7	9.0	14.8

1.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꾸 게임이 생각이 난다. 2.게임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게임은 중요하다. 3.불쾌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4.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에 빠지거나 가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5.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6.게임을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2~6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큰 것으로 나타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7. 게임 과몰입 경험 종합 분석 결과

다. 성별 게임 과몰입 종합 분석 결과(게임 과몰입이라고 응답한 비율)

구분	게임 과몰입						
	1	2	3	4	5	6	비율평균
남	32.5	19.2	29.6	5.5	2.9	17.4	17.9
여	21.6	6.5	28.5	2.0	0.7	9.0	11.4

1.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꾸 게임이 생각이 난다. 2.게임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게임은 중요하다. 3.불쾌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4.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에 빠지거나 가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5.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6.게임을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2~6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큰 것으로 나타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7. 게임 과몰입 경험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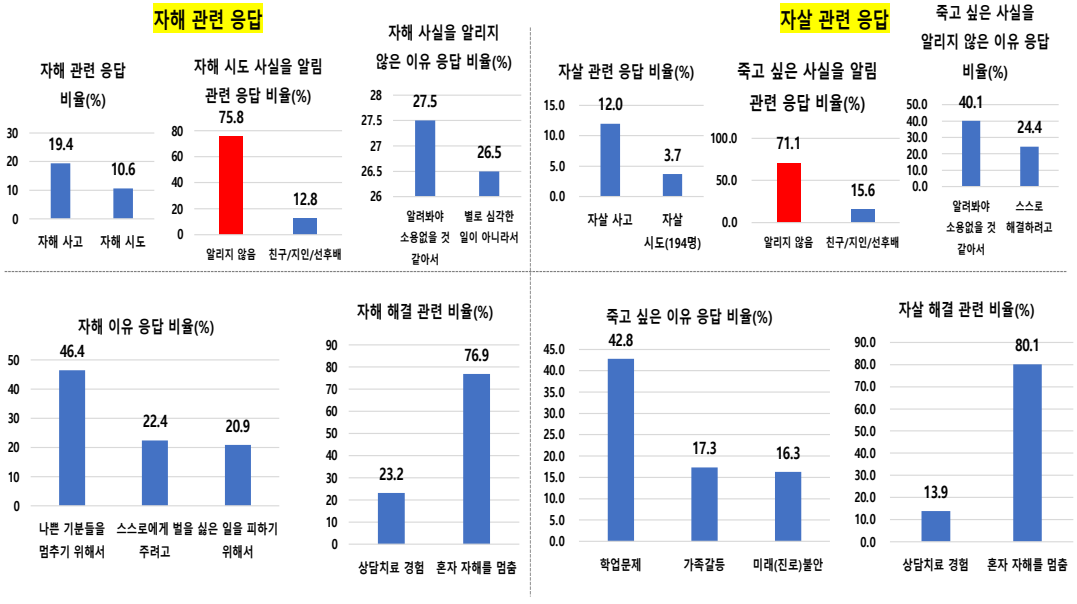
라. 지역별 게임 과몰입 종합 분석 결과(게임 과몰입이라고 응답한 비율)

구분	게임 과몰입						
	1	2	3	4	5	6	비율평균
마산				5.8			
진해		17.0	33.2				
진주				5.6			
통영					3.4		
밀양	42.9			5.0	3.1	17.6	18.3
양산	41.2	18.4	34.8				19.2
의령			32.8				
함안	42.9						
남해						18.5	
함양						18.0	
합천		23.2			3.4		17.5

1.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꾸 게임이 생각이 난다. 2.게임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게임은 중요하다. 3.불쾌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4.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에 빠지거나 가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5.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6.게임을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8. 자해, 자살 관련 경험 종합 분석 결과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9. 청소년지원기관 유용성 종합 분석 결과(기관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게임 과몰입						
	청소년전화 1388	다들어줄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Wee클래스/Wee센터	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디딤센터)	비율평균
전체	34.9	40.2	29.3	25.9	35.3	33.2	33.1
남	36.8	42.3	32.8	22.1	38.0	37.9	35.0
여	32.3	37.6	24.8	29.0	30.3	23.5	30.0

전체 응답자 중, 다들어줄개(40.2%)가 가장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Wee클래스/Wee센터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가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9. 청소년지원기관 유용성 종합 분석 결과(기관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지역	청소년전화 1388	다들어줄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디딤센터)	비율 평균
창원							
마산							
진해				34.3			
진주							
통영		52.6	42.9				
사천							
김해							
밀양							
거제	54.5			33.3			
양산							
의령	50.0	57.1	50.0				
함안					60.0	50.0	
창녕							
고성							
남해							
하동		50.0					
산청	66.7				66.7	66.7	48.4
함양	50.0	57.1					
거창	60.0	60.0			75.0	80.0	57.4
합천	75.0	65.0	54.6	39.1	66.7	71.4	62.0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0. 청소년 지원 교육 유용성 종합 분석 결과(교육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아동학대가 정폭력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근로권익 노동인권	술/담배/약물			도박문제예방	성/폭력			
				음주예방	흡연예방	환각성 물질위험		학교폭력예방	성희롱/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교육
전체	29.5	34.2	21.3	18.6	17.1	17.7	20.3	21.3	18.7	18.4	17.0
중	27.0	29.8	24.5	15.1	13.0	13.8	15.9	17.5	14.6	15.1	14.0
고	32.3	38.9	19.2	22.3	21.5	21.9	24.8	25.4	23.0	21.3	20.2
남	31.6	36.2	24.9	20.2	19.0	20.0	22.0	20.9	18.9	20.0	17.7
여	27.5	32.3	17.4	16.9	15.3	14.8	17.9	21.7	18.5	16.6	16.3

전체 응답자 중,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관련 교육(34.2%)이 가장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근로권익노동인권 외 10개 교육이 더 도움 되었다고 응답함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근로권역 노동인권 교육이 더 도움 되었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관련 교육이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1. 청소년 희망 지원 서비스 종합 분석 결과(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응답 평균 비율(%)				
	진로준비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활동 기회/정보 제공
전체	82.1	77.0	81.8	70.1	77.6
중	79.4	72.9	79.4	67.1	75.2
고	84.9	79.1	84.2	72.9	80.0
남	77.3	70.9	77.9	65.4	72.5
여	87.0	80.9	85.6	74.7	82.7

1.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2.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3.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4.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5.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6.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7.자산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8.건강검진 제공 9.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10.성교육 제공 11.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12.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13.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1.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15.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16.다양한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17.모임, 휴식, 놀이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세부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는 건강검진 제공 >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 진로탐색 체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지원 서비스들 더 희망한다고 나타남(통계적으로 유의함)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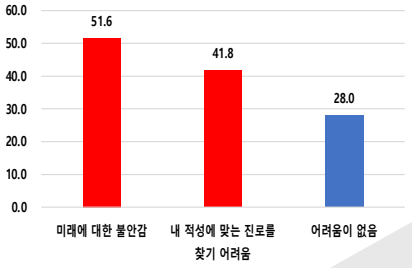
11. 청소년 희망 지원 서비스 종합 분석 결과(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진로준비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건강 관리	상담 서비스	활동 기회/정보 제공
창원			●		
마산	●				
진해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결과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2.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



불확실성은 행동 지연 (Lipshirz & Strauss, 1997)을 야기하고 행동 회피 가능성이 큼

한국은 다른 문화권보다 진로결정의 불확실성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큼

위협적 평가가 클수록 개인은 그 위협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음 (Hofstede, 1991)

불확실한 고용환경 및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불확실한 사회적 위협

직장 초기 진입단계에서의 혼란, 조기 퇴사 또는 잦은 이직의 악순환 (이재성, 2016)

전공-직업정합성 (한국고용정보원, 2017)

사회,교육,공학 50.0%

예체능 20.1%

의약 75.2%

중도학업 포기 자퇴 및 휴학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전공 부적응 (장재윤, 신희천, 이지영, 2007)

전공선택 이유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성적 35.0%

취업의 용이성 33.4%

E N D

감사합니다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토론

—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정책전문가의 관점에서 보기

신상훈 의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Memo

Memo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토론

—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교육전문가(도교육청)의 관점에서 보기

김상문 장학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교육전문가(도교육청)의 관점에서 보기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상문 장학관

1. 작은 신호에서 출발

세대별 검색엔진에 차이가 있다. 4050세대는 네이버 또는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주로 유튜브로 검색하고 소통한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유튜브 전성시대이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시대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언론,문화 지형을 변혁시켜가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브에 빠져들며 열광하고 있을까? 현실사회와 기성세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축적된 자기 재능과 끼의 노하우에 대하여 "구독" 받고 "좋아요"로 선택받아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개개인 삶의 공유와 자기 표현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사회가 이제야 개개인성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개별화사회이자 민주사회로 질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학교밖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성이 존중받기를 원하나 기성세대인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라 인식하며 그들을 평가하며 가르치고자 한다. 동일한 존재이나 학교 안과 밖에서의 실존적 가치평가 불일치로 인하여 학생들은 갈등하고 아파하며 아래와 같이 자살.자해와 관련한 작은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 수업 중 보건실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화장실에서 손목 자해 후 수업 중인 교사에게 도움 요청
2) 등교거부 및 과거 따돌림 경험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위클래스 상담 및 대안교육 위탁으로 학교부적응을 줄여가고 있는 중 환청 및 환시 등 증세 발현되어 심리적 고통 호소
3) 부모에게 등교한다고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은 채 자살예방센터에 전화상담 후 전화기를 꺼 연락되지 않다 오후 전화기가 켜져 위치 추적으로 학생 발견
4)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자살고위험군으로 나왔으나 친구가 많았으나 동아리활동 중 친구 간 다툼으로 어려움 호소
5) 학교폭력 피해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수면제 과다 복용
6)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우선관심군이며, 부모 별거 상태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화가 나서 자신의 방에서 손목 자해

이러한 작은신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황파악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추진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소중한 결과물인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공유받게 되어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사대상인 중고등학교 협조와 학생 참여 속에 10,429명이 설문에 응하였지만 유의미한 응답지가 5,367명으로 줄어 아쉬움은 있지만, 5천명 이상의 응답지 분석결과는 실태파악과 정책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경남교육청 대안치유담당 업무영역인 자살,자해와 관련한 종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영역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사업추진 현황 및 시사점 순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청소년 자살.자해 실태 분석 결과

가. 자해부분 분석 결과

"청소년생활 실태조사 8.자해 및 자살 관련 경험 종합분석 결과" 자해부분 응답에 따르면, 1) 자해 사고 경험 응답 비율은 19.4%, 실제 자해 시도율은 10.6%로 나타났다.(고통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행동으로 자해 시도), 2) 자해 시도를 대부분 알리지 않으며(75.8%), 주로 친구나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리는 것(12.9%)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거나(27.5%)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26.5%)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치료 경험율이 23.2%에 그쳐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자해를 그만 둔 이유는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했다(76.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 자살부분 분석 결과

"청소년생활 실태조사 8.자해 및 자살 관련 경험 종합분석 결과" 자살부분 응답에 따르면, 1) 자살 사고 유경험율은 12.0%, 실제 자살 시도율은 3.7%(194명)이며, 가정환경, 학업, 진로 문제로 해석해볼 수 있다. 2) 죽고 싶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리지 않고 있으며(71.1%), 친구나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리는 비율(15.6%)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알리지 않는 이유가 알려봐야 소용 없을 것 같거나(40.1%)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24.4%) 순으로 나타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담치료 경험율이 13.9%로 자살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자살 시도를 그만둔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율(76.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살 시도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력 및 갈등해결역량이 낮으며 삶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부모-자녀 관계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남 학생 자살.자해 현황

가. 최근 5년간 자살 현황

경남지역 내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현황은 2017년 5건,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5월(10월) 2건(11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불화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우울, 성적 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1.5.28.기준)

지역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
인원	2	1	2	7	9	2	1	1	1	1	1	28

- 거제 9건, 김해 7건, 창원, 양산, 통영 각 2건으로 학생수 대비 거제, 김해가 높은 경향성

사유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인원	11	4	1	1	11	28

- 가정불화 등 **가정 문제(11)**가 가장 많으며, **원인미상(11), 우울증(4), 질병(1), 학업(1)** 순

최근 학생자살,자해시도의 문제점은 학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초1건(3), 중9건(11), 고18건(23)], 초등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거제와 김해지역 같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우울 등 학생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해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여학생의 자해시도 및 자살자 2020년 전체 7명 중 6명, 2021년 11명 중 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나. 청소년 실태분석과 학생자살 현황 간 비교

청소년 실태분석의 결과처럼 최근 중고등학교에 유행하는 현상 중의 하나는 고통과 고민에서 벗어나거나 부모와 친구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하여 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정 내에서의 돌봄과 사회적 관계성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연기, 온라인 등교, 비대면수업 확대, 모둠활동 중심의 배움중심수업 위축, 창의적체험활동 축소 및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나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맺기 경험을 단절케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경남지역 학생 자살의 특징은 여학생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상군이었던 학생에게서도 자주 발생한다. 여학생과 사회적 관계성이 좋은 정상군 학생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친구간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감소되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르거나 및 또래 친구간의 상담이 줄어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수 있다.

학생 자살의 원인은 청소년 실태분석 결과처럼 가정환경 문제가 1순위이며, 우울증 2순위, 학업.진로문제 3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증의 원인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픈 경험과 트라우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경남교육청 위기학생 예방교육활동

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2009년부터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전환되고, SNS, Youtube 등 자살·자해관련 유해매체 노출, 유명인 자살로

자살심리 공유 · 모방 등의 악영향으로 청소년 자살 사망이 지속되고 있어 경남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Wee센터 중심 학교 응급심리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 및 자살.자해.대응 안내서 배부, 학교응급심리지원 모의훈련, 학교응급심리지원 키트 배부,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및 심리상담료 지원 현실화(1인당 치료비 6,000천원, 관심군 3,000천원, 상담료 2,000천원 한도), ▲학교수요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초·중·고 87교, 327,000천원), ▲,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7권역) 운영, ▲정신과 자문의 사업(6기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18청), ▲자해시도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중심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학생 대상 6시간 이상 예방교육 필수 확보, ▲학교 찾아가는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빼기 명상 프로그램(22교), ▲정신건강 지역네트워크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간 협력적 상담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내 자살·자해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학교 내 자살.자해 위기 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교직원 대상 게이터키퍼 교육 강화, ▲자살징후 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교사용 학생자살 체크리스트 활용,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초등학교 1, 4학년, 중·고 1학년)를 통한 정상군/일반관리군/우선관리군으로 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 관리, ▲다들어줄개 앱을 통한 모바일 기반 문자·카톡 상담망 구축 및 운영, ▲힘내라 Book 프로젝트를 통한 자해시도 발생교에 학생 자존감 회복과 마음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서한문과 도서 발송(너에게도 안녕이, 오늘 하루도 괜찮아,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처음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 넌 아름다워, 모두가 빛나요 ,위로의 그림책)

나. Wee프로젝트 사업: 학생상담 및 정서심리지원

'우리'(We)와 '교육'(Education), '감성'(Emotion)을 결합시킨 Wee프로젝트는 부모 실직, 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나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Wee프로젝트는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2차 안전망인 Wee센터를 통해 학교적응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을 통해 다시 학교와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1) Wee스쿨(중.고 위탁): 낙동강학생교육원(공학), 진산분원(여), 칠북분원(남)
2) Wee센터(18개) 및 Wee클래스(595교: 매년 20교 이상 추진 중)
3)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및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
4) Wee닥터(원격화상 자문) 운영: 남해, 밀양, 하동, 거제, 함양, 고성, 창녕, 창원
5) 랜선 Wee클래스 운영(원격화상상담시스템): 전문상담(교)사, 학생
6) 또래상담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총625교(초24교, 중214, 고168, 특수2)

5. 적극적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가. 정신건강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한 정기적인 업무협의, 간담회, 우수사례 및 사업공유, 유사사업 공동추진 등을 통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높여 청소년이 믿고 찾아오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나.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교)사 간의 상시 소통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사안 발생 시 기관 간의 경계를 넘는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공동 연수 운영과 슈퍼비전 지원으로 담당자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경남교육청의 Wee카페 다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예방하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를 공유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발생할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기별 학생상담주간을 정례화하여 밀도있는 정신건강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위기 학생이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 기관별 청소년 생활실태와 관련한 업무영역의 전문성 갖춘 담당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간의 지속가능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운영할 전국 단위의 개방형 공모를 통한 현장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고 인사정책에 있어 우대해야 할 것이다.

Memo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토론

—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상담복지전문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점에서 보기

신영재 센터장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상담복지전문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점에서 보기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영재 센터장

♥ 개인의 심리적 특성 종합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자존감,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철회(위축), 자기통제력, 갈등해결역량, 삶에 대한 인식 등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자기 통제력과 갈등해결역량이 부족하며 삶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상담 및 지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이를 함께 고려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우리는 과연 청소년을 주체적인 시민 혹은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가?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 복지의 대상, 각종 프로그램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청소년을 서비스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청소년을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미성숙한 존재 등 지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지시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보호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예) 위기해소지원→성장지원,

♥ 청소년지원기관 유용성 종합 분석 결과

청소년지원기관 유용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33.1%가 청소년지원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각 기관의 기능에 따른 접근성과 기관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따른 유용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통해 청소년지원기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된 기관명과 독립 시설 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기관명에 업무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부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 건물에 속해 있어 건물명으로 센터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대외명칭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내부 명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하여 학교나 타 기관에서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청의 WEE센터처럼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예) 청소년센터, 유스센터

▸상담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청소년안전망의 연계활동으로 선도조치, 특별교육, 수강명령 등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징벌적 조치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 상담서비스의 유용성 평가도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예)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차이

▸상담서비스를 받는 대상

상담서비스를 받는 위기 청소년(전체 청소년의10% 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사례의 고위기 개입이 37.3이상으로 고위기 청소년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80%이상의 청소년들의 주 관심사인 진로, 학습 영역의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의 점검이 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14조)

①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②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③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④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⑤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⑥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⑦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희망하는 지원서비스 종합 분석 결과

희망하는 5개 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한 희망 정도를 비교하면, 진로준비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서비스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가 가장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상담서비스가 낮은 이유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제한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문항별로 희망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제공,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순으로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청소년대상 진로상담, 진로지도

-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상담에서 진로, 학습상담의 중요성이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가 진로상담과 학습상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자 연수와 보수교육 계획을 설계 할 필요가 있고, 센터에서는 다양한 진로상담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경상남도 청소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51.6%),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41.8%)'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진로와 적성탐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는 생애발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 시기와 입직하는 성인초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학업 및 진로 관련 지원방안 및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문제

- 현재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 2000년 이후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청소년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하나의 과도기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독립적인 성인기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유예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립된 성인이 되기 어렵고, 성인으로 전환하는 여정이 길어졌다는 의미이다.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에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51.6%)'만 봐도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환경적(부모의 경제력, 성적위주의 평가 등)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포기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책제안

- 위기청소년 특히, 자살, 자해, 외상후 스트레스 등 위중한 내용을 다루는 보다 전문화된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위기청소년지원에 국한된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 성장상담, 진로상담, 예방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기 시기의 주요과제인 진로탐색, 진로지도, 진로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성인기의 건강한 전환을 도와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온 오프라인의 상담 교육 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토론

—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방법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의 관점에서 보기

문지혜 교수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방법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의 관점에서 보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지혜 교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13세~18세)의 실태 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년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과 청소년의 심리적 속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이상 세상(ideal world)에 대한 강한 동경과 현실(real world)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정체감(self-identity)과 사회적 역할(career self-concept)을 점검하여 앞으로 다가올 성인의 삶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청소년은 마치 걸음마기 아기와 같은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오는, 도와주면 혼자 하겠다고 하고 혼자 하라고 하면 안 도와 준다'고 하는. 그렇기에 자신에 대한 의심이 깃든 불안·우울한 무드와 함께 과도한 자신감으로 심리적 에너지의 급상승과 하락으로 질풍노도의 시기(Hall, 1904; Gooddwin, 2005 재인용)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심리적·현실적 거리가 멀어지고 또래의 영향력이 부모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예, 김희영, 양미경, 곽수란, 2015; Casey & Caudle, 2013). 다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서양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를 관심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의 전반적 특징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 조사의 연구방법과 결과들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지 쪽수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조사참여 학생들은 설문지의 두께에 압도당하여 조사참여 동기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 같고 이것이 불성실한 응답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자료를 두 번에 걸쳐 수집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만 표본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에 입학을 한 2020년도 등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 3학년과는 학업과 관련된 그리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이 표본구성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셋째, 결과분석에서 Likert scale로 제시된 문항들의 통계분석결과는 산술평균치로 제시하면 결과의 가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중2년의 경우, '외부활동'에 대한 문항에서 '외부 활동 없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결과에서 학교급수별 빈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호소 빈도는 15.0%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2020)의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자료에서 중 2의 경우, 20.3%, 고 2의 경우 27.9%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결과의 비교에서 경상남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인의 우울감 경험비율(10.5%)에 더 가깝게 나타난 점이 놀라운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의 낮은 빈도의 우울경험의 원인에 대한 추후분석 또는 추후조사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다섯째 사항과 관련해 사회적지지 체계가 부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된 자료에서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10.1%로 나타났습니다(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320&siteId=null, 2021.11.26.). 경상남도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체계를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감의 경험빈도와 비교해보면, 경상남도 청소년의 우울감이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에 추후반복 조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가정생활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 문항과 관련해 '어릴 때 부모 사이'를 물음으로써 '현재'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학생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획득하고자 투쟁하는 시기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관심에 대한 요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상남도 부모에 대한 '지지'의 요구가 예외적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모-자녀의 관계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의 지역경제상황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가정 내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폭력을 '엄격한 양육'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폭력 피해자들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할 경우에 보이는 귀인의 양상입니다. 이런 부적 귀인의 변화는 '상황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자 보호대책를 더 세밀하게 세우고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조사결과가 '도움이 안 되거나 더 피해를 봤다'라는 응답비율이 71.9%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아홉째, 경상남도 청소년의 가출경험 빈도는 6.3%, 1년 가출경험이 있는 비율은 2.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 내 가출경험 빈도는 2013년~2019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단연구에서 3.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9)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보면, 가출경험은 조사첫해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 청소년의 경우, 가출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세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출비율이 더 높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낮은 가출비율은 경상남도 청소년의 강점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원인을 파악

하여 이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째, 스마트폰과의존 관련 문항에서 경상남도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은 약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30.2%로 나타난 것(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2019)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의 스마트폰과의존이 적게 나타난 원인은 아마도 조사자료 수집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과의존이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의존은 대뇌의 보상체계에서의 변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과의존 예방책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야외활동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은 여가활동으로 인터넷 관련 활동 비율 68.9%, TV 및 DVD 시청 59% 등 실내활동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그리고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으로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의 과의존 예방책은 '야외활동', '다양한 문화체험'의 활동의 제공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취미와 자기개발과 관련짓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기에 활동을 통해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사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수준과 문화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한째, 자해사고 경험이 19.4%, 자해시도는 10.6%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13세~18세 청소년 5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2%가 자해시도·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청소년의 자해비율이 대략 10%대인 다른 나라(예, 중국, 미국, 대만, 영국 등)에 비해 20%대로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조옥귀 등, 2020 재인용) 자해와 관련된 더 정교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학교현장에서 자해시도를 한 학생이 있을 경우, 이 상황을 학생내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해시도의 목적과 관계없이 학교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학생은 어른 모르게 자해시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열둘째, 청소년지원기관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세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지역차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지역의 심리상담 및 복지에 대한 보수적 분위기, 청소년지원기관의 규모, 전문 인력의 수 등 다양한 요인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만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청소년지원 관련 서비스 정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낮은 지역의 청소년지원 기관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행태조사에 대한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대한 저의 전반적 인상과 함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기관들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관에 연락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무엇이든 단 하나의 전화번호에 연락을 하면 이후 전문화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기관의 유용성과 관련해 면담조사와 같은 질적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emo

Memo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 포럼

인　　쇄 2021년 12월

발　　행 2021년 12월

발 행 인 차윤재

발 행 처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청소년관 3, 4층)

https://gnyouth.net/

Tel. 055)711-1388 / **Fax.** 055)711-1398

2021 경상남도
청소년
생활실태포럼

경상남도 GYEONGNAM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Gyeongsangnamdo Youth Counseling&welfare center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